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음악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신체 움직임 교육 내용 분석*

Analysis of Body Movement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송 정 주**

Jeongju Song

초록 본 연구는 초등 신체 움직임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신체 움직임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교수법에 나타난 신체 움직임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한 후, 총 99개의 현행 3-6학년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의 신체 움직임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함축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출발점은 신체표현활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체로 음악의 어떤 요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표현활동은 음악적 목적에 맞는 활동이어야 하며 체계적·총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하며 모둠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체표현활동은 음악적·예술적 목적을 내포한 음악놀이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신체 움직임 교육, 초등음악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ody movement education contents of the 99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of current 2015 revised elementary music curriculum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body movemen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usic. The analytical criteria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points suggested by Jaques-Dalcroze, Kodály and Orff. The result of the analysis implicat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he body movement education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music education; how to express which musical element with which part of the body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the activity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intended musical purpose and body expression activity should be proposed systematically and holistically; the body expression activity should contain musical and artistic dimension; the integrated activity utilizing the group activity should be more prevalent; the body expression activity should be reinforced by musical play imbued with musical and artistic dimensions.

Key words: Jaques-Dalcroze, Kodály, Orff, body movement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 This stud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Jeongju Song's doctoral disse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jduck@hanmail.net

Teacher, Daegu Dongseong Elementary School, 311, Suseong-ro, Suseong-gu, Daegu, Korea

I. 서론

오늘날 신체표현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음악교육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 이는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절대음악이념에 바탕을 둔 리머(Bennett Reimer, 1932-2013)의 심미적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엘리엇(David J. Elliott, 1948-)이 주장한 ‘음악하기(Musicing)’에 중점을 둔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표현하는 덕·체 위주의 실천적 측면 중심의 음악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97a; Kwon, 2002; Lee, 2004; Ham,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하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기, 지휘하기, 음악놀이하기 등을 통해 음악을 직접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신체 움직임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 자크-달크로즈(Émile Jaques-Dalcroze, 1865-1950),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오르프(Carl Orff, 1895-1892)의 신체 움직임 교육은 우리나라의 학교음악교육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²⁾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교육에서 신체움직임 교육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학습하기 위한 움직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무질서하게 목적 없는 움직임을 하며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Kim, 2004; Song, 2019; Lee, 2015; Han, 2000; Heo, 2009; Hong, 2007).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신체 움직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전인교육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음악교육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인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1) 장근주(Jang, 2020)의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해당학년음악담당교사 설문에서 현 교육과정 부문의 문제점으로 수업 내용이 어려우며 “감상 이론 위주가 아닌 신체표현 위주의 가치관과 기악활동,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 제시,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제반 요건이 충족”(p. 56.)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한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론 중심이 아닌 신체표현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 제5차와 6차는 음악교육의 동향에서 이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는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 제6차 교육과정에는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교수법이 나타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 지도에 적합한 전통적 교수방법으로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교수법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어 있다. 검정교과서로 바뀐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세 음악교육학자와 그들의 교수법에 대해 각 지도서 나름대로 소개되어 있으며, 차시별 활동에도 이들의 신체 움직임 교육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시대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낮춰보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화기를 거친 후 일제강점기에는 독일과 동맹 관계였던 일본의 영향으로, 해방 이후에도 역시 독일 음악관이 팽배했던 미국의 영향으로 음악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독일 음악관이 주류를 이루면서 음악의 신체적 측면이 등한시되는 풍조가 지속되었다(Lee, 2002). 이와 같은 영향으로 신체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박에 맞춰 손뼉치기, 발구르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신체 움직임 교육 자체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세 음악교육학자가 추구한 신체 움직임 교육관을 토대로 신체 움직임 교육을 분석할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틀에 따라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신체표현활동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초등음악교육에서 신체 움직임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은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토대에 두고 고안되었기에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음악교육에서 리듬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신체 움직임과 결합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에서 신체움직임 교육을 강조한 점에서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Song, 2019). 본장에서는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제시한 신체 움직임 교육을 평가하는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들은 4장에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1.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관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들의 신체 움직임 교육 자체에 대해 각각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크-달크로즈의 음악교수법은 크게 3가지인 솔페즈(Solfège), 리트미크(La Rythmique)³⁾,

3) 프랑스어인 리트미크를 1906년 버밍엄 대학의 John Harvey 교수가 영어로 번역한 용어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유리드믹스(eurhythmics)’이다. 이 논문에서는 번역어 대신 원어인 ‘리트미크’를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즉흥연주(Improvisation)로 나뉘는데 여기에 음악에 내재된 감정까지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플라스틱 애니메이션(Plastique animée)⁴⁾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 네 영역 모두 신체 움직임을 통한 교육이기에 신체 움직임은 그의 교수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크-달크로즈는 내청이 없는 학생들이 악기 없이 스스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각 능력을 키워 선율, 리듬, 화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음을 즉각 목소리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근육계와 신체 리듬을 감지하는 귀를 반복하여 훈련하면 리듬감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며 리듬은 곧 움직임”(Émile Jaques-Dalcroze, 1921, p. 82)이므로 신체 없는 리듬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리듬과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리드미컬한 동작의 표현은 모든 근육에 잠재되어 있던 의식, 즉 생각의 표현이므로 신체와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지속적인 리트미크 반복 훈련을 통해 근육 운동이 자동화(Automatism) 단계에 이르러 뇌에서 리드미컬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Jaques-Dalcroze, 1921). 그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여 궁극적으로 근육운동감각(Kinesthesia)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과 정신, 신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추구한 것이다. 그는 음악에서 훈련받아야 할 첫 악기는 인간 신체라고 함으로써(Choksy, Abramson, Gillespie, & Woods, 1986) 음악 예술의 기본인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신(全身)을 훈련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학생들이 음악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신체 움직임 훈련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리트미크는 리듬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맞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을 가장 깊은 내면에서 느끼고, 이를 자의식 없이 온몸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몸이 음악을 표현하는 섬세한 악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 방법이었다.

코다이는 모든 헝가리 사람이 음악을 향유(享有)할 수 있기를 바랐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악기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창 교육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악보를 읽고 쓰는 데 필수적인 내청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자크-달크로즈처럼 솔페즈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크-달크로즈나 오르프와 달리 음악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전통음악문화가 결여된 상황에서 그와 그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부터 사용되어 온 커웬의 손기호, 슈베(Émile Joseph Chev,

4) ‘플라스틱 애니메이션’은 ‘플라스틱’로 일컫기도 하며 리트미크 훈련을 통해 음악적 지식과 신체 움직임 기술을 익힌 학생이 음악에 내재된 감정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즉흥적인 움직임, 다시 말해 들리는 음악을 보이는 음악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프랑스어로 플라스틱(plastique)의 의미는 ‘유연한, 몸짓이 아름다운, 융통성 있는, 멋진’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1804-1864)의 리듬 음절 및 날으는 음표와 숫자 계이름, 이동도법, 귀도 다레초에서 유래한 손가락 기호, 자크-달크로즈의 리트미크 중 걷기, 달리기 등 기본적 신체 움직임 등의 교수법들을 헝가리 음악교육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그는 노래와 신체 움직임이 함께 하는 가창 게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기에 자연히 음악 리듬은 신체 근육 리듬에서 나왔다는 자크-달크로즈의 생각에 동의하였다(Giddens, 1993, p. 215, 재인용). 어린이는 생리적 경험으로 리듬감을 획득(Giddens, 1993, p. 215, 재인용)하기에 리듬 학습 역시 일찍부터 철저히 해야 하므로 유치원부터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iddens, 1993, p. 89, 재인용). 그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박자를 맞추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움직임 교육을 접목하여 유치원에서 놀이처럼 배우는 방안을 권장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으로 노래 리듬에 맞추어 손뼉 치며 걷기 또는 손뼉 없이 걷기를 제시하였다. 즉, 유치원에 가창 게임을 도입하여 움직임과 가사, 멜로디를 동시에 익히는 방법을 제시하되, 가락은 솔페즈를 통해 지도하며, 리듬은 노래에 담긴 자연발생적인 운율로 습득하도록 한 것이다.⁵⁾

오르프의 오르프-슐베르크에는 원초적 움직임, 즉 원초적 춤을 통해 음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오르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는 “원초적인 음악은 배운 음악이 아니라 이미 누구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음악으로, 따라서 누구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가리킨다.”(Cho, 2007, p. 194)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개인의 내적 리듬을 의식하게 하거나 해방하는 것”(Giddens, 1993, p. 296)이 요구되므로 리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오르프는 음악과 신체 움직임은 함께 가르쳐야 하고 이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 보완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ong, 2019). 인간의 내면을 자극하는 가장 강렬한 원시적인 형태의 자극제인 리듬을 교육하기 위해 그는 단순한 리듬부터 복잡한 리듬까지 그 형태를 다양하게 배열하여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리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연주하기 쉽도록 움직임 수업에 다른 여러 방법들도 도입하였다. 그 예로는 원시적 타악기를 사용하여 리듬훈련을 한 것,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핸드 드럼을 치게 하여 풍부한 뉘앙스를 표현하도록 한 것 등이 있었다. 다양한 음색도 추구하

5) 코다이는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의 순으로 리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가창 게임과 찬트에서 가장 흔한 패턴인 리듬부터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음악교육에서 학습해야 할 리듬 요소의 순서를 헝가리 민요의 리듬 구성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민요에서 마주르카 변주를 제외하고는 드문 3박자 계통이 2박자 계통 뒤에 지도되는 것이다. 그는 민요 부르기を通して 리듬을 비롯한 음악의 기초 원리 등도 학습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헝가리 민요에 없거나 드문 박자나 리듬은 다른 나라의 민요를 가져와 배우도록 하였다. 그가 위와 같이 제시한 리듬 요소는 헝가리 음악 교과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Yang, J. M. (1995). Rhythm learning sequence in hungary music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Reality. 10, 431-449. 참조)

여 손가락 튕기기, 손뼉치기, 발 구르기와 같은 신체 타악기의 사용을 계속 늘렸으며 (Snell, 1980), 아프리카와 동양의 타악기들을 참고하여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글로켄 슈펠, 실로폰 등 다양한 음색의 타악기를 고안하였다. 여기에 리코더도 추가하여 즉흥 연주와 춤, 움직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Song, 2019). 이처럼 오르프는 학생들이 새로운 음색을 활용하여 춤을 추며 음악을 만들도록 권장하였는데, 이때 그룹을 지어 춤을 추던 학생들이 반주자가 되고, 반주하던 학생들이 춤을 추는 등 서로 역할을 바뀌가며 즉흥적으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그의 신체 움직임 교육은 말리듬 활동, 신체를 활용하여 리듬을 표현하는 신체 타악기 활동, 악기로 리듬을 표현하는 악기연주 활동, 즉흥연주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인간 존재의 원시성과 원초성에 바탕을 두고 내면에 깔려있는 음악을 움직임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고자 했던 오르프의 교육관이 담겨 있다.

2. 신체 움직임 교육의 관점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관점을 바탕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표현활동의 선 체험·후 인지 방식으로의 제시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첫 번째 관점은 이들 모두 음악교육을 시작할 때 음악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 즉 음악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크-달크로즈는 “음악은 문헌이나 개념보다는 움직임으로 학습”(Caldwell, 1993, p. 27)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론은 실천을 따라야 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둔다. 아이는 경험할 때까지 규칙을 배워서 안 된다.”(Jaques-Dalcroze, 1921, p. 63)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체는 사고의 표현수단”(Jaques-Dalcroze, 1921, p. 85)이므로 신체의 근육계 훈련을 통해 자동화에 이르게 하면 “뇌에서 분명한 리듬 이미지를 창조”(Jaques-Dalcroze, 1921, p. 152)하므로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인식하고 깨달아 결과적으로 이성과 신체 모두를 통해 리듬을 읽고 쓰며 창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Jaques-Dalcroze, 1921). 학생들은 신체를 통해 여러 가지 리듬 요소를 깨닫고 신체를 통한 연습으로 가장 미묘한 뉘앙스조차도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Abril & Gault, 2016).

코다이는 “음악은 지적으로 이성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중략] 그

방법은 직접적 직관으로 가득 차야 한다.”(Kodály, 1974, p. 120)고 주장하였다. 그의 책 『가창게임』서문에서는 “어린이가 더 어릴수록 가창에 움직임이 더 요구된다. 음악과 신체 움직임 사이의 유기적 연결은 가창 게임으로 표현된다.”(Kite, 1990, p. 27, 재인용)면서 “놀이를 통해서 음악의 기초를 가르쳐야 한다.”(Szönyi, 1994, p. 37)고 주장하였다. 그는 『Kodály 333』서문에 제시된 연습단계 중 첫 단계를 ‘리듬에만 집중하기’로 설정하여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두드리기, 복치기, 손뼉치기를 되풀이”하도록 지시하였다(Cho, 1996, p. 6). 이러한 코다이의 입장을 고트는 『음악교과 지도』에서 코다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음악을 경험한 다음에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킨다는 말로 표현하였다(Abril & Gault, 2016).

오르프는 원초적인 음악은 그 자체에 말, 악기, 움직임이 통합되어 있는 신체활동이나 마찬가지로이므로 어린이 학습에 적합하다고 하였다(Abril & Gault, 2016). 더불어 어린이에게 음악과 움직임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때문에 “음악과 움직임은 동시에 가르쳐야 하며 이들은 서로 보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Landis & Carder, 1972, p. 153)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세 음악교육학자 모두 음악교육을 시작할 때 음악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음악적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신체로 먼저 표현하는 것을 ‘선 체험 · 후 인지’라는 말에 답아 ‘신체표현활동이 선 체험 · 후 인지 방식인가?’를 첫 번째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의 명료성

두 번째 관점은 세 음악교육학자가 신체 움직임 교육에서 어떤 음악 요소를 어떻게 신체 표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무엇을 학습하기 위한 움직임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다.

자크-달크로즈 자신도 ‘유리듬(Eurhythm)’을 위해 학습해야 할 리듬 요소’들을 제시한 바 있고, 아브람손은 이를 34가지⁶⁾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Choksy, Abramson, Gillespie, & Woods, 1986, p. 4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자크-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 예술과 교육(Eurhythmics, Art and Education)』에서 ‘시간-공간-에너지-무게-균형’에 대한 플라스티크 표현 중 공간 탐색을 위한 활동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팔을 어디에서부터

6) 시간-공간-에너지-무게-균형, 규칙적인 박, 템포, 템포의 뉘앙스, 강약, 강약의 뉘앙스, 아티큘레이션, 악센트, 박자, 쉼, 지속, 세분, 패턴, 고유한 박, 프레이징, 단선율 형식, 축소, 확대, 리듬 대위법, 당김음, 반주가 있는 단성부, 대위법 형식, 캐논, 푸가, 보충 리듬, 불균등한 박자, 불균등한 박, 불균등한 박자와 불균등한 박, 복합 박자, 복합리듬, 헤미올라, 리듬 변화, 12개의 분할, 루바토의 34가지.

어디까지, 어떤 각도와 방향으로 어떻게 들거나 이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Jaques-Dalcroze, 1930, p. 20).

코다이의 제자들은 코다이의 교육철학에 맞게 다양한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그의 제자 쇠니(Erzébet Szönyi)는 『코다이 음악교수법』에서 헝가리 음악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반복리듬 진행을 학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교사가 ♩ ♩ ♩ ♩ 를 노래할 때, 학생은 ♩ ♩ ♩ ♩ 를 손뼉 친다. 반대로도 한다. 이어서 1번 그룹이 리듬에 맞춰 계명창을 할 때, 2번 그룹은 제시된 리듬을 손뼉치기로 연주한다(Szönyi, 1994, p. 18).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신체로 표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오르프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Music für Kinder)』에서 리듬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이 신체로 표현해야 하는 리듬을 악보 앞에 표시함으로써 무슨 리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중 1권에 제시된 악보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손뼉치기, 발 구르기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리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 Music for Children I 중 리듬 제시의 예
(Carl Orff and Gunild Keetman, 1958, p. 3)

이처럼 세 음악교육학자들은 리듬학습이라는 학습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신체로 음악 요소를 표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무엇을 위한 학습 활동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의 명료성’을 두 번째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신체표현활동의 체계적 제시

세 번째 관점은 세 음악교육학자가 신체 움직임 교육을 제시할 때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크-달크로즈의 리트미크로 ‘점점 빠르게’와 같은 개념을 학습할 때 ‘음악 없이 움직이기→익숙해지면 음악과 함께 움직이기→즉흥적으로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다른 개념 학습도 마찬가지이다(Landis & Carder, 1972). 달크로즈는 리트미크를 통한 리듬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Plastique)를 창안하여 한 단계 더 높은 후속 신체표현 교육을 제시하였다.

코다이 교육에서는 ‘노래하기 게임→자신의 지역과 나라의 민요→다른 나라의 민요’ 순으로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예술 음악 학습을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며(Landis & Carder, 1972), 그의 시장교재들도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지도방안에 대해 고트는 『음악교과지도』에서 “코다이 접근법은 보통 3-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교사는 개념을 담은 음악적 소재로 음악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개념을 ‘준비’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실연(Presentation)’ 단계 동안 그 개념을 인식하게 되고, 개념이 제시된 후 학생들은 그 개념을 읽고 쓰고 작곡하거나 즉흥연주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개념을 ‘실행(practice)’하는 기회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라고 하였다(Abril & Gault, 2016, p. 76).

오르프 교육에서는 간단한 리듬에서 어려운 리듬 순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말리듬을 시작으로 하여 노래나 악기연주로, 말리듬과 신체리듬(신체 타악기 연주)이 이어져 노래나 악기연주로, 말리듬과 신체리듬, 악기연주가 차례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노래나 악기 연주 등을 하기 전에 리듬을 익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때에는 학습목표 아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긴밀하게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 음악교육학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학습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체표현활동 제시의 체계성’을 세 번째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4) 신체표현활동의 총체성 추구

네 번째 관점은 세 음악교육학자가 신체 움직임 교육을 출발점으로 총체성을 추구한 것이다. 여기서 총체성이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자크-달크로즈는 학생들의 창의적·예술적 능력의 강화를 위해 두뇌, 신체, 의지,

감각의 4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특히 학교가 감각 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음악과 예술을 통해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aques-Dalcroze, 1930). 그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뇌, 신체, 의지, 감각 4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그의 리트미크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예술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방법이라고 하였다(Jaques-Dalcroze, 1930). 그의 이러한 생각은 플라스틱 발현으로 귀결되었다.

코다이의 음악철학은 페스탈로치의 전인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Cho, 2004, p. 55) “음악을 통한 전인교육에 강한 애착”(Szönyi, 1994, p. 14)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음악 교육이 어린이의 다른 능력까지도 길러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음악은 예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와 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Szönyi, 1994) 음악은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르프는 어린이의 개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이의 내면을 자극하고 계발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Liess, 1966). 그는 “신체와 정신의 원시적 통합”(Liess, 1966, p. 59)인 술베르크를 통해 어린이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음악교육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감각적으로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술베르크 마지막 5권 총연습 부분에는 괴테의 파우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신체 움직임 교육을 통한 총체적 음악교육의 완성을 음악극을 통해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처럼 세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교육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총체성을 추구하였기에 ‘신체표현활동의 총체성 추구’를 네 번째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5)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내포한 신체표현활동 제시

다섯 번째 관점은 세 음악교육학자가 궁극적으로 예술 음악을 지향하였으며 이들의 신체 움직임 교육에는 항상 음악적·예술적 측면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자크-달크로즈는 “인간 신체는 예술적 상상과 창조적 사고와 협력할 때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좋은 악기가 된다.”(Jaques-Dalcroze, 1930, p. 55)며 리트미크와 플라스틱 훈련을 통해 들리는 음악을 보이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하였다. 리트미크와 플라스틱 훈련들이 인간에 내재된 감정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신체로 이를 유연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Jaques-Dalcroze, 1930). 그의 신체 움직임 교육이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춤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 플라스틱크는 “음악극으로 표현 가능하다.”(Jaques-Dalcroze, 1921, p. 261)고 한 그의 말, 오페라와 음악극을 작곡한 그의 이력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그는 궁극적으로

종합예술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코다이는 좋은 음악, 즉 예술 음악만이 그들의 귀 훈련과 올바른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음악교육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적합한” 좋은 음악만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ho, 2004, p. 59).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음악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의 신체 움직임 교육에도 당연히 음악적·예술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헝가리 민요 즉,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헝가리에서 전통음악문화 형성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예술 음악 문화 형성을 뜻하며 오페라를 비롯하여 예술적인 합창곡을 다수 작곡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역시 궁극적으로 예술음악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오르프는 쉐베르크의 출발점이 “순전히 교육적이었다기보다는 예술적이었다.”(Orff, 2004, p. 13)고 하였다. 쉐베르크에서 강조되는 즉흥연주는 음악 만들기의 원초적 상태로 말(노래), 움직임, 악기가 통합된 것이다. 그는 쉐베르크를 바탕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음악을 끌어내어 예술적인 차원까지 승화시키려 하였기에 그의 신체 움직임 교육에는 음악적·예술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수많은 음악극을 작곡한 것도 예술음악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세 음악교육학자는 한결같이 음악적·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움직임 교육을 제시하였으므로 ‘신체표현활동의 음악적·예술적 측면의 내포’를 다섯 번째 분석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신체 움직임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분석에서는 첫째, 신체 움직임 교육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지도서에 제시된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이자 학습목표로 제시된 제재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둘째, 활동에 따른 신체 움직임 교육의 반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영역 내 활동별 신체표현 비율을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은 이러한 신체표현활동이 세 음악교육학자가 추구했던 목적과 방향 즉, 이들의 공통된 원칙에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분석대상은 2015 개정 초등학교 3-6학년의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 총 51권에 수록된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과 관련된 제재들이다. 분석은 제재 중심으로 차시별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하였다. 이때 제재 자체가 악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재

간 및 학년군 간의 연관성 및 연계성이 적었기에 제시된 제재 내용을 살펴볼 때 학년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및 지도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of Korea

Gr	Publisher	Authors	Remarks	Total
3rd and 4th grades	YBM	Hong et al.	• 1 volume each of 3rd and 4th grade textbook per publisher, total of 18 vol. • 1 volume each of 3rd and 4th grade teachers' guide books by publisher, total of 9 vol. • Total 27 vol.	51
	Gumsung	Kim et al.		
	Dong-A	Seog et al.		
	MiraeN	Chang et al.		
	Visang	Cho et al.		
	Music and Life	Kwon et al.		
	Jihaksa	Huh at al.		
	Chunjae	Kim et al.		
Chunjae Textbook	Yang et al.			
5th and 6th grade	YBM	Hong et al.	• 1 volume each of 5th and 6th grade textbook by publisher, total of 16vol. • 1 volume each of 5th and 6th grade teacher guidance books by publisher, total of 8 vol. • Total 24 vol.	
	Kumsung	Kim et al.		
	Dong-A	Seog et al.		
	MiraeN	Jang et al.		
	Visang	Cho et al.		
	Jihaksa	Heo et al.		
	Chunje	Kim et al.		
	Chunjae Textbook	Yang et al.		

위에 제시된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신체움직임 교육과 관련된 제재를 추출해본 결과 가장 바람직한 양상은 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성취기준인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를 해당 제재의 학습목표 또는 차시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신체 움직임이 성취기준이자 학습목표로 설정된 제재에 세 음악교육학자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⁷⁾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음악교육학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예술적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국악 및 다른 나라 민요와 관련된 제재 즉, 전래동요 및 민요, 창작국악동요, 국악 감상곡, 다른 나라 음악(서양 및 아시아 민요) 등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학습목표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학습목표로는 설정되었으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학습목표와는 무관하게 신체 움직임 교육을 논의 활동으로 제시한 경우들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 움직임 교육은 전 영역에서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 구분 없이 신체표현 및 신체 움직임 교육이 반영된 제재는 모두 추출하였다.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이자 학습목표로 제시된 제재(주제)⁸⁾의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and percentage of subjects presented by body movements as a standard achievement⁹⁾
N(%)

Gr	Publisher (Total number of subjects ¹⁰⁾)	Subjects in which body movements are presented as achievement standards for each musical activity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s	Total(N)	Percentage(%)
3	A (22)	4	1	0	5	23
	B (22)	0	2	0	2	9
	C (22)	4	0	0	4	18
	D (21)	0	0	0	0	0
	E (20)	5	0	0	5	25
	F (25)	6	2	0	8	32
	G (13)	1	3	0	4	31
	H (15)	1	0	0	1	7
	I (20)	3	0	0	3	15
Total		24	8	0	32	
4	A (23)	3	0	0	3	13
	B (22)	4	2	0	6	27
	C (23)	2	0	0	2	9
	D (22)	0	0	0	0	0
	E (19)	4	0	0	4	21
	F (21)	5	0	0	5	24
	G (13)	1	2	0	3	23
	H (16)	2	0	0	2	13
	I (20)	4	1	0	5	25
Total		25	5	0	30	

8) 9종의 교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단원-제재(주제)-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지학사만 제재 대신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성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재와 주제의 차이가 없어 보여 이후 논의에서는 ‘제재’로 용어를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9)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이자 학습목표로 제시된 제재의 비율은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제시되는 모든 통계 비율도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A는 YBM, B는 금성, C는 동아, D는 미래엔, E는 비상교육, F는 음악과 생활, G는 지학사, H는 천재교육, I는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10) 각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제재에서 국악 및 외국민요 관련 제재를 제외한 제재 수를 말한다.

<Table 2> Continued

Gr	Publisher (Total number of subjects)	Subjects in which body movements are presented as achievement standards for each musical activity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s	Total(N)	Percentage(%)
5	A (20)	3	0	0	3	15
	B (23)	0	0	0	0	0
	C (21)	2	1	0	3	14
	D (18)	2	0	0	2	11
	E (18)	2	0	0	2	11
	G (13)	3	1	0	4	31
	H (18)	1	1	0	2	13
	I (18)	1	1	0	2	14
	Total	14	4	0	18	
6	A (21)	2	0	0	2	10
	B (23)	4	0	0	4	17
	C (22)	3	1	1	5	23
	D (19)	1	0	0	1	5
	E (20)	4	0	0	4	20
	G (10)	1	0	0	1	10
	H (17)	1	0	1	2	12
	I (17)	0	0	0	0	0
	Total	16	1	2	19	
Total		79	18	2	Total presented subjects: 99	

초등음악교과서 및 지도서를 분석한 결과 표현영역 79개, 감상영역 18개, 생활화영역 2개, 총 99개의 제재가 본 영역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신체표현활동의 비율을 학년별·출판사별로 살펴보면 3학년의 F출판사가 8개의 신체표현활동을 제시함으로써 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0개의 제재로 0%의 비율을 보이는 출판사도 있었다. 3학년과 4학년의 D출판사, 5학년의 B출판사, 6학년의 I출판사들이다. 전체 결과를 보았을 때 5·6학년군보다 3·4학년군의 신체표현활동 성취기준 수가 많았으며, 표현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에 따라서도 그 수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학년별, 영역별로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분석방법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에 있는 신체표현활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체표현활동이 선 체험·후 인지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

둘째,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한가?

셋째, 신체표현활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넷째, 신체표현활동이 총체성을 추구하는가?

다섯째, 제시된 신체표현활동에 음악적·예술적 측면이 담겨 있는가?

IV. 연구 결과

1. 신체 움직임 교육의 영역별 비율 분석

신체 움직임 교육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년과 무관하게 영역별로 신체표현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body movements by musical activities¹¹⁾ (N(%))

Publisher Musical Activities	A	B	C	D	E	F	G	H	I
Expression	12(92)	8(67)	11(79)	3(100)	15(100)	11(85)	6(50)	5(72)	8(80)
Appreciation	1(8)	4(33)	2(14)	0(0)	0(0)	2(15)	6(50)	1(14)	2(20)
Practical Application	0(0)	0(0)	1(7)	0(0)	0(0)	0(0)	0(0)	1(14)	0(0)
Total	13(100)	12(100)	14(100)	3(100)	15(100)	13(100)	12(100)	7(100)	10(100)

11) 이하 제시된 모든 출판사는 약어로 나타내며 A는 YBM, B는 금성, C는 동아, D는 미래엔, E는 비상교육, F는 음악과 생활, G는 지학사, H는 천재교육, I는 천재교과서이다.

분석결과, 표현영역의 신체표현활동 비중이 타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신체표현 활동이 표현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영역에서 가장 많은 신체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출판사는 E로 15개의 제재를 제시하여 비중이 100%에 달했다. D출판사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서 신체표현활동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상영역에서는 G출판사가 6개의 제재로 50%의 비율로 가장 높았을 뿐, 그 이외에는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화 영역의 경우 C와 H출판사에 서만 각 1개의 제재를 제시하고 있어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C와 H출판사는 세 영역 모두 신체표현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거나 표현영역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편차의 원인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체표현과 관련된 것은 표현영역의 성취기준에만 명시되어 있고 감상영역은 성취기준 해설에 학년군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알고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Ministry of Education, 2015a, p. 8)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시된 제재의 그 수와 비율은 현저히 적다. 생활화 영역의 성취기준에 [4음03-02]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p. 9)가 있으나, 놀이를 신체표현활동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는 신체표현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표현 영역 내에서의 주요 활동인 가창, 기악, 창작 활동에 대한 신체표현활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body movements by activity in expression N (%)

Publisher Expression	A	B	C	D	E	F	G	H	I	Total
Singing	11(92)	5(63)	10(91)	2(67)	13(86)	11(100)	5(83)	3(60)	8(100)	68
Playing instruments	1(8)	1(12)	0(0)	1(33)	1(7)	0(0)	1(17)	2(40)	0(0)	7
Creating	0(0)	2(25)	1(9)	0(0)	1(7)	0(0)	0(0)	0(0)	0(0)	4
Total	12(100)	8(100)	11(100)	3(100)	15(100)	11(100)	6(100)	5(100)	8(100)	79

표현 영역 내에서 신체표현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은 가창임을 알 수 있다. 가창·기악·창작의 모든 활동에서 신체표현활동을 제시한 출판사는 E출판사가 유일하나, 그중 가창 활동에의 비율(86%)이 현저히 높다. 특히, F와 I출판사는 가창활동에만 신체표현활동이 집중적(100%)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표현 영역 내에서도 신체표현활동이 고르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학습 내용 분석

양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표현활동이 세 음악교육학자가 추구한 바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99개의 제재를 5개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현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세 활동 중 가장 많은 신체표현활동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창활동은 다시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나의 제재 내에서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된 경우는 이를 차시별로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기준에 적합하면 ○, 적합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신체표현활동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1) 표현 영역

표현 영역에서 신체표현이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로 제시된 제재는 총 79개이다. 이를 활동별로 나누었을 때 제재의 차시 내 주요 활동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활동에 무게를 두어 분석하였으며, 제재 내 차시별 활동 구분이 명확히 나뉘진 경우에는 같은 제재일지라도 각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의 차시 내 주요 활동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의 예로는 3학년 E출판사(비상교육) ‘파란 가을 하늘’, G출판사(지학사)의 ‘알고 싶어, 가락울’을 들 수 있다. 이중 E출판사 ‘파란 가을 하늘’은 노래 부르기가 주요 활동이고 리코더 연주는 노래 반주를 위한 활동이어서 가창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G출판사의 ‘알고 싶어, 가락울’은 가창 활동을 통해 음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여 가락의 흐름을 구별하여 궁극적으로 제재곡을 멜로디언으로 연주하는 것이 주요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기악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제재 내 차시별 활동 구분이 명확히 나뉘진 경우의 예로는 G출판사의 3학년 ‘음악, 몸으로 표현해봐’, 4학년 ‘음악, 몸으로 느껴봐’를 들 수 있다. 이 제재들은 1-2차시는 감상 활동, 3-4차시는 가창 활동으로 서로 다른 제재곡을 제시하여 구분하고 있어 각각을 따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창활동의 제재 수는 68개이나 차시로 분류하여 제재 수를 재측정한 결과 70개가 되었다.

(1) 가창

3-4학년군 중 3학년 가창 활동에 제시된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학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ntents related to body movement of third-grade singing activities

Publisher	Analysis criteria Title of the song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physical expression	Systematic configuration	the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A	Sprout's Song	×	×	×	×	○
	Happy family	×	×	×	×	×
	Snow	×	○	○	○	○
	New year's day	×	×	×	×	×
C	Fishing	○	×	×	×	○
	The word that ends with "Li"	○	○	×	×	○
	Cotton candy	○	○	×	×	○
	With nature	×	○	×	×	○
E	Hello	○	○	○	○	○
	Blue autumn sky	○	○	○	○	○
	When winter comes	○	○	×	×	○
	Folk tale	○	×	×	×	○
F	Rhythm instrument song	○	○	○	×	○
	Marble Rain	○	○	○	×	○
	March of the sea	×	×	×	×	×
	The two of you, slightly	○	×	○	○	○
	Cotton candy	×	○	○	×	×
	Dragonfly	○	×	×	×	×
G	Music, body expression -Fishing, cotton candy (3-4th time)	○	×	×	×	×
I	Constant beat	×	○	○	○	○
	Pitch	○	○	○	○	○
	Length of a note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3학년 가창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2개의 제재가 신체표현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중 5개의 분석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제재는 3개로 E출판사의 ‘안녕’과 ‘파란 가을 하늘’, I출판사의 ‘음의 높고 낮음’이다. 분석기준별로 살펴보면, 제시된 신체표현활동이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담고 있는 기준의 제재는 총 16개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의 명료성에 적합한 제재는 13개, 체계적 구성은 10개, 총체성 추구는 7개에 불과하여 이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적 면에서 총체성 추구가 미흡한 제재들의 공통점은 노래를 부르고 학습한 다음에 악곡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후속 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음악 요소를 체득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활동까지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내면에 생겨난 음악적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이 결여되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학년 가창 활동의 신체 움직임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of 4th grade singing activities

publisher	Analysis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Title of Criteria the song					
A	A sweet dream	x	x	x	x	x
	In the flower garden	x	○	x	x	○
	A song of raindrops	x	x	x	x	x
B	Baby goat	x	x	x	x	x
	Doremi song	x	○	○	○	○
	Dreams will come true.	x	x	x	x	x
C	With my friend	x	x	x	x	x
E	Smile	○	○	x	x	○
	Children's song	x	x	x	x	x
	Welcome/ Let's all get together and dance.	○	x	x	x	x
	Winter wind	x	x	x	x	x
F	Children's March	○	○	x	x	○
	A round of the town	○	○	○	x	○
	Dad's face	○	x	x	x	x
	Green mountains and green fields	x	○	○	x	○
	A day of lark	○	x	x	x	x
G	I want to know the pitch (1st-2nd time)	○	○	○	○	○
	Music, feel it with your body(3rd-4th time)	x	○	○	x	○

<Table 6> Continued

publisher	Analysis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Title of Criteria the song					
H	Make my dreams come true.	○	×	×	×	×
	Winter music	○	×	×	×	○
I	Flow of the melody	×	○	○	○	○
	Strong and weak beat triple meter	○	○	○	○	×
	Harmony of sounds	×	×	×	×	○
	Song lyrics with feelings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4학년 가창 활동의 신체표현활동은 총 24개의 제재에 제시되어 있다. 그중 G출판사의 ‘알고 싶어, 가락을(1-2차시)’만이 유일하게 분석기준에 적합하였다. 특히, 신체표현활동의 음악적·예술적 측면 반영에 부합한 제재는 11개로, 3학년(16개)에 비해 그 수와 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의 명료성, 체계적 구성의 비율이 감소한 것과 연관된다. 학습목표와 맞지 않는 신체표현활동, 음악적 목적에 맞지 않는 신체표현활동이 제시된 경우가 3학년보다 늘어난 것에도 반영되어 체계성 없는 활동과도 연결된다. ‘선 체험·후 인지 방식의 제시’도 3학년(13개)에 비해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는 신체표현으로 체득하기에 앞서 개념을 먼저 제시한 제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5·6학년군의 가창 활동 중 5학년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of 5th grade singing activities

publisher	Analysis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Title of Criteria the song					
A	Doremi song	○	○	×	×	×
	Dokdo is our land	○	○	×	×	○
C	Numbers and Rhythm	×	×	×	×	×
	We are one with music	○	×	×	×	×
D	Fixed do & movable do	○	○	×	×	○
E	Make the world beautiful by singing.	○	×	×	×	×
G	Guess my name.	×	○	×	×	○
	Melody and Chord	×	○	○	×	○
	Make the music even better. ¹²⁾	○	○	×	×	×
I	The harmony of sounds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5학년예 제시된 신체표현활동 제재는 총 10개이지만, 그중에서 5가지 분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재는 하나도 없었다. 3·4학년군에 비해 선 체험·후 인지의 순으로 제시된 제재의 비율은 늘어났지만, 체계적 구성과 총체성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4학년과 마찬가지로 학습목표와 맞지 않는 신체표현활동이 제시된 점, 악곡의 음악 요소를 신체표현하며 노래 익히는 과정이 생략된 제재가 늘어난 점, 표현한 악곡을 통해 생긴 음악적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 없는 점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6학년 가창 활동의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2) 해당 제재는 ‘셈여림의 변화’를 지도하기 위해 가창, 기악, 감상, 창작 4가지의 활동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1·2차시는 창작과 가창, 3·4차시는 감상과 기악 활동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활동별 또는 차시별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제재를 4차시의 연차시로 제시된 활동으로 가정하고 제시된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Table 8>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of 6th grade singing activities

publisher	Analysis Criteria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Title of the song					
A	I need a break	×	×	×	×	○
	Songs are vitamins	○	×	×	×	×
B	Balloon	○	○	×	×	×
	Love song	×	×	×	×	×
C	Through music	○	○	○	×	○
	Drawing the wind	○	○	×	×	×
	Balloon	×	×	×	×	×
D	Mt. Geumgang	×	○	○	×	○
E	The spring breeze	○	○	○	○	○
	Goalkeeper	○	○	×	×	○
	My beautiful friend and face	×	○	×	×	○
	Ballon	×	×	×	×	×
G	You and me	○	○	×	×	×
H	Take the train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6학년에서의 신체표현활동 관련 제재는 총 14개로 5학년보다 4개 늘어났지만 세 음악교육학자가 추구한 음악교육의 방향에 모두 적합한 제재는 1개였다. 신체표현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총체성을 추구한 제재는 1개에 불과했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음악적·예술적 측면의 반영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제시된 학습내용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데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가사와 노랫말의 관계를 생각하며 노래 부르는 활동에서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표현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던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활동에 풍선에 꿈을 적어 오랫동안 띄우는 놀이를 하는 등 활동순서의 체계적 제시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악곡의 특징과 관계없이 노랫말을 신체 표현하는 활동이 다수였으며 음악적 감정의 표현 없이 단순히 표현활동만으로 끝나는 제재도 많아 총체성 추구의 면에서도 아쉬움이 컸다. 이처럼 제시된 놀이 활동이 음악놀이가 아닌 단순한 일반놀이에 국한되어 음악적·예술적 측면이 배제된 것이 아쉬운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2) 기악

3-6학년 기악 활동의 제재들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Table 9>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for instrumental music activities in grades 3-6

Gr	Publisher	Analysis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Criteria Title of the song					
3	G	I want to know the melody	○	○	○	×	×
	H	Pitch and flow of the melody	○	○	○	×	○
5	A	Play with rhythm and instruments	○	○	○	○	○
	D	Same melody, different feeling	×	○	×	○	○
	E	Clapping quartet	○	○	○	○	○
	H	Doremi song	×	×	×	×	○
6	B	Hush little baby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기악 활동의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제재는 총 7개로 가창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분석결과 다른 기준에 비해 총체성을 추구하지 않은 제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기준의 경우 가창 활동에 비해 보다 높은 비율의 적합성을 보였는데, 이는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이 대체로 ‘음악 요소 익히기-악기 연주하기-연주한 곡 감상하고 느낌 발표하기’의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의 결과 5학년 A출판사(YBM)의 ‘리듬이랑 악기랑 놀아요’와 E출판사(비상)의 ‘손뼉치기 4중주’의 제재는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잘 부합되었다. 리듬을 익혀 신체로 연주하기-악기로 연주하기-합주하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듬연주로 놀이하는 활동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놀이가 음악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창작

3-6학년의 신체표현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창작활동은 총 4개로 그 수가 가장

적다. 이들 4개 제재의 공통점은 가창 활동과의 연계성을 띠는 창작활동이다. 모두 노랫말을 바꾸어¹³⁾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주로 가창 활동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Table 10>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for creating activities in grades 3-6

Gr	Publisher	Analysis Criteria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Title of the song					
3	E	There is no flower that is not pretty	○	×	×	×	○
4	B	Small world	×	×	×	×	×
	C	Fresh summer	×	○	×	×	○
6	B	Pretty little stat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분석결과 창작활동에서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추구방향을 모두 반영한 제재는 없었다. 노랫말을 창작한 후 기존의 노랫말을 수화로 신체 표현하는 활동이 최종활동으로 제시된 제재가 있는가 하면, 음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친구가 만든 신체 표현을 따라하는 활동도 있었다. 점음표를 학습한 후 점음표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이 이어지는 대신 노랫말을 창작하는 활동이 제시된 것처럼 체계성이 부족한 제재도 있었다. 이를 통해 가창 활동과 연계된 창작활동에서 최종활동을 제시할 때, 창작활동과 신체표현활동이 연관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감상영역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음악 요소와 개념을 지도하도록 제시되어 있지만, 각 지도서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감상 영역에서의 성취기준만 제시된 제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인 [04-01-02], [06-01-02] ‘악곡의 특징을 신체로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신체표현을 통해 음악 감상을 추구한 제재들도 있었기에, ‘신체표현하기’ 성취기준이 함께 제시된 제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의 명료성에서 △는 신체표현활동의 제시는 잘 되어

13) ‘싱그러운 여름’과 ‘예쁜 꼬마별’은 노랫말로 랩을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있으나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감상 영역의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for appreciating activities in grades 3-6

Gr	Publisher	Analysis Criteria Title of the song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3	A	Ballet (Waltz of Flowers)	×	○	○	○	○
	B	Carnival	○	△	×	×	○
		The Nutcracker	×	×	×	×	○
	F	Carnival	○	×	×	×	×
		March music	×	○	×	○	○
	G	to the music zoo	○	○	○	×	○
		Music, express yourself with your body-The Nutcracker	○	○	×	○	○
		dance and music	○	×	○	○	○
4	B	Let's move while listening to music - minuet, gavott	○	×	×	○	○
		World of musical	×	×	×	×	×
	G	March to the music	○	○	×	○	○
		Music, feel it with your body (1st-2nd times) ¹⁴⁾	○	○	○	○	○
	I	Dance and music in the picture	×	×	×	×	○
5	C	Take the train-hungarian dance	×	×	×	○	○
	G	Into world music	×	○	×	×	×
	H	Mom and sister ¹⁵⁾	×	×	○	○	○
	I	Mysterious magic flute	○	○	○	○	○
6	C	Picture at an exhibition	○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 : Unclear purpose)

14) 2차시의 제재로 국악감상곡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 국악부분은 제외하고 1차시분의 서양음악 감상곡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5) 해당 제재의 목표는 가단조 음계를 이해하고 음악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1차시에서는 ‘엄마야 누나야’를 통해 셋잇단음표와 가단조의 음계를 이해하고 게이름으로 노래 부르는 활동을,

3·6학년 감상 영역의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내용의 제재는 3학년 8개, 4학년 5개, 5학년 4개, 6학년 1개로 총 18개이다. 분석결과 ‘신체표현의 음악적·예술적 측면의 내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타 영역에 비해 감상 영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흡한 나머지 네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분석기준에 적합한 4학년 G출판사의 ‘음악, 몸으로 느껴봐’ 제재와 5학년 I출판사의 ‘신비한 요술피리’ 제재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제재들은 공통적으로 감상 곡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 감상곡의 특징적인 음악 요소를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어지는 활동으로는 떠오르는 느낌을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신비한 요술피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음악극 공연을 하도록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종합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생활화 영역

생활화 영역의 제재 대부분이 생활화 영역의 성취기준만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6학년 C와 H의 지도서에 표현 영역의 ‘신체표현’ 성취기준이 함께 병기된 제재가 각 1개씩 있어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Table 12> Contents related to body expression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grades 3-6

Gr	Publisher	Analysis Criteria Title of the song	Pre-experience & post-cognition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body expression activities	Systematic configuration	Pursuit of entirety,	Reflecting musical and artistic aspects
6	C	music skipping	○	×	×	×	×
	H	Dokdo Dragonfly	? ¹⁶⁾	×	×	×	×

(○ : Qualified × : Insufficient criteria)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생활화 영역의 제재는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이 추구했던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생활화 영역의 초점이 음악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 관점을 토대로 분석

2차시에서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을 감상하고 느낌을 비교하여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표현활동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차시는 2차시이나, 2차시의 감상 활동이 1차시의 연계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차시를 분석할 때, 1·2차시를 연차시로 묶어 분석하였다.
16) 제재곡을 익히기 위한 신체표현활동이 제시되지 않아 판단 불가.

기준 5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 초등음악과 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신체 움직임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신체 움직임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제재를 신체표현활동이 성취 기준이자 학습목표로 설정된 제재를 선정한 결과, 표현 영역 79개, 감상 영역 18개, 생활화영역 2개 총 99개였다. 이 제재들 중 표현 영역을 가창, 기악, 창작활동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가창은 68개, 기악은 7개, 창작은 4개의 제재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 활동별로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는 표현 영역에, 표현 영역 내에서는 가창 활동에 신체표현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가창 활동 중심으로 신체 움직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표현활동이 제시된 제재를 세 교육학자의 교육의 공통점에서 추출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각 제재를 분석한 결과,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재는 99개의 제재 중에서 가창 활동 4개, 기악 활동 2개, 감상 활동 2개로 총 8개에 불과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인 선 체험 · 후 인지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가창활동은 70개의 제재 중 37개, 기악활동은 7개 중 4개, 창작활동은 4개 중 2개, 감상활동은 18개 중 10개, 생활화영역은 2개 중 1개로 50% 이상 선 체험 · 후 인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약 절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기에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인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한가에 대한 결과는 가창활동은 38개, 기악은 6개, 창작은 1개, 감상은 8개, 생활화영역은 0개로 기악활동에서만 약 86%의 높은 비율로 잘 제시되고 있었고 나머지의 경우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기악 활동처럼 다른 활동들도 신체표현활동을 제시할 때 그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기준인 신체표현활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가창활동은 22개, 기악은 4개, 창작은 0개, 감상은 6개, 생활화는 0개로 기악에서만 약 57%의 비율로 제시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현행 초등 음악교육에서 미흡한 부분 중 하나로 연계성 있게 제시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음악교육에서 신체표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네 번째 기준인 총체성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가창은 13개, 기악은 3개, 창작은 0개, 감상은 10개, 생활화는 0개로 감상활동에서만 약 56%의 비율로 제시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신체표현활동 제시 시, 총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인 제시된 활동이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가창은 39개, 기악은 6개, 창작은 2개, 감상은 15개, 생활화는 0개로 기악(약 86%)과 감상(약 83%)은 높은 비율로 잘 제시되고 있었으나 가창(약 56%)과 창작(50%)은 절반의 비율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가창과 창작에서 이 부분을 더 다질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자크-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을 토대로 분석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음악교과서 및 지도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현 영역 중에서 가창활동에 신체표현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제시되어야 할 요구와 신체 움직임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악활동에서는 신체표현활동 제시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었고 기악과 감상활동에서는 제시된 신체표현활동이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음악교육에서 신체 움직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시작을 신체표현활동에서 출발하도록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음악적 체험만으로 활동이 끝나서는 안 되며 음악적 체험을 통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선 체험·후 인지 방식으로 신체 움직임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신체표현활동은 신체로 음악의 어떤 요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 활동은 성취하고자 하는 음악적 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표현활동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을 할 때에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이어져 지도되어야 한다. 즉,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학생들이 기초부터 다질 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체표현활동은 총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신체표현을 통해 음악 요소를 체득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파악한 후 그 결과 우리나라 음악적 감정을 말이나 신체, 악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음악적 감정 및 느낌을 신체로 표현하는 자크-달크로즈의 플라스틱 아니메가 좋은 본보기가 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신체표현활동은 음악적·예술적 측면을 담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이 결핍된 것은 교과서 및 지도서 분석 시에 자주 발견된 오류 중 하나로 놀이 활동 제시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학생들이 신체 움직임 교육을 토대로 더 높은 예술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제시된 활동 자체가 음악적·예술적 목적을 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섯째, 신체표현활동은 모듬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음악교육학자는 모두 신체 움직임 교육에 그룹 활동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자크-달크로즈의 플라스티크, 코다이의 합창, 오르프의 합주와 음악극 활동이 모두 그 대표적 예로서, 이들은 학생들이 같이 음악을 만들어나가고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룹 활동, 즉 모듬활동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활동을 감상하는 미적 체험의 기회도 되므로 이를 심분 활용한다.

일곱째, 신체 움직임 교육은 통합적 활동으로 구성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이 특정한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제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으로 나누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이 특정 제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여덟째, 신체 움직임 교육을 위해서는 음악적·예술적 목적을 내포한 음악놀이를 더욱 보강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음악교육학자는 모두 음악과 놀이는 함께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다만 이때 놀이는 음악적·예술적 목적을 가진 음악놀이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놀이란 음악, 리듬, 신체 움직임(춤 포함), 말, 즉흥성, 자유, 총체성이 포함된 모든 음악활동이나 하위징아가 말하는 놀이의 특징 중 경쟁의 요소는 제외된다. 경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놀이는 음악적·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과정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음악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음악교육 외적 요구를 수용하여 미적인 삶을 영위하는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려 했던 세 음악교육학자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이 이러한 개선 작업에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 음악교육에서 바람직한 신체 움직임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성취가 더욱 바람직하게 이루어져 진정한 미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Abril, C. R., & Gault, B. M. (2016). *Teaching general music: Approaches, issues, and viewpoi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ldwell, T. (1993). A Dalcroze perspective on skills for learning. *Music Educators Journal*, 79(7), 27-28, 66.
- Cho, H. K. (1996). *Kodály solfege 1*. Seoul: Dara.
- _____. (2004). *Kodály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music.
- Cho, S. I. (2000). Einige Defizite in koreanischen literaturen bezüglich des Orff-Schulwerk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 181-204.
- _____. (2007). Improvisation in der Musik- und Bewegungserziehung von Guntherschule, Orff und Keetmann. *Zeitschrift fuer paedagogische Forschung*, 12(2), 189-210.
- Cho, S. I., Ju, D. C., Kang, J. W., Kim, H. S., Kim, E. J., Byun, I. J., Chae, S. H., Han, S. M., Jeong, I. J., Kim, S. A., & Lee, K. S.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Visang.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Visang.
- Cho, S. I., Choi, E. A., Kim, M. J., Han, S. M., Chae, S. H., Byun, I. J., & Kim, Y. A.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Visang.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Visang.
- Choksy, L., Abramson, R. M., Gillespie, A. E., & Woods, D. (1986). *Teaching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NJ: Prentice-hall.
- Giddens, M. J. (1993). *A unity of vision: The ideas of Dalcroze, Kodaly and Orff and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Dortal disser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 Ham, H. J. (2013).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music education with emphasis on historical trend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1(1), 125-143.
- Han, Y. E. (2000).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instruction method of Emile Jaques-Dalcroze, Zoltan Kodaly and Carl Orff*.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 Heo, J. M., Cheon, E. Y., Choi, C. J., & Kim, M. H.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Jihaksa.

-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Jihaksa.
- Heo, J. M., Oh, S. H., Jeong, G. M., Song, J. H., Cheon, E. Y., Choi, C. J., & Kim, M. H.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Jihaksa.
-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Jihaksa.
- Heo, J. Y. (2009). *Instructive guidance plans for music with the rhythm principle of Dalcroze: For fourth and sixth graders*. Master thesis, Kangwon University.
- Hong, J. G., Song, T. D., Lee, J. H., Yang, S. Y., Lee, J. Y., Lim, H. J., & Kim, H. A.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YBM.
-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YBM.
- Hong, J. G., Song, T. D., Yang, S. Y., Song, S. G., Kim, K. M., Kim, M. J., Lee, J. Y., Moon, M. A. Lim, H. J., & Kim, H. A.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YBM.
-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YBM.
- Hong, S. A. (2007). *A study on modern method of music education: Focused on methods by Dalcroze, Kodaly, and Orff*.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 Jang, G. B., Kang, Y. S., Kim, K. M., Kim, K. J., Kim, K. H., Kim, J. N., Jeong, M. Y., & Min, H. Y.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MiraeN.
-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MiraeN.
- Jang, G. B., Kang, Y. S., Kwon, B. R., Kim, K. M., Kim, K. J., Kim, K. H., Kim, J. N., Min, H. Y., & Jeong, M. Y.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MiraeN.
-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MiraeN.
- Jang, G. J. (2020). An implementation of 2015 music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the 3rd and 4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Music Education*

- Science*, 45, 41-64.
- Jaques-Dalcroze, É. (1921). *Rhythm, music and education*. Trans Harold F. Rubinstein. O.G.: Barclay Press.
- _____ (1930).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Trans Frederick Rothwell. N.H.:Ayer Company.
- Kim, A. G., Kim, H. J., Hong, J. H., Cho, K. S., Kim, J. I., Jeong, E. Y., Cho, K. S., Jeong, I. Y., & Lee, S. Y.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Chunjae.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Chunjae.
- Kim, A. G., Kim, H. J., Hong, J. H., Kim, J. I., Jeong, E. Y., Ham, M. H., Cho, K. S., Jeong, I. Y., Kim, E. H., & Lee, S. Y.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Chunjae.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Chunjae.
- Kim, M. J. (2004). *The research of guidance plan for enhancing the music environment in the small scaled class: Focused on the fif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Y. H., Hyun, K. S., Heo, M. K., Kim, D. S., Lee, M. Y., Lee, C. M., & Lee, J. Y.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Kumsung.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Kumsung.
- Kim, Y. H., Hyun, K. S., Heo, M. K., Kim, D. S., Lee, M. Y., Lee, C. M., Shin, H. S., & Lee, J. Y.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Kumsung.
- _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Kumsung.
- Kite, T. S. (1990). Zoltán Kodály: His contribution to music education. *Kodály Envoy*, 16(3), 25-33.
- Kodály, Z. (1974). *The selected writings of Zoltán Kodály*. Trans Lili Halápy and Fred Macnicol. London: Boosey & Hawkes.

- Kwon, D. W. (2002). The influence of American music education on Korea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3, 47-84.
- Kwon, T. W., Yoon, M. J., Bae, E. G., Seol, D. Y., & Shin, H. N.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Music & Life.
- _____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Music & Life.
- Landis, B., & Carder, P. (1972). *The eclectic curriculum in American music education: Contributions of Dalcroze, Kodaly, and Orff*. Virgini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Lee, D. K. (2015). *The development of a teaching plan for rhythm instruction using the teaching methods of Dalcroze, Kodaly, and Orff focusing on third-grader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 S. (2004). *Secondary school music curriculum education 50 years reflection and prospect. Reflections and prospects for 50 years of school education: Academic symposium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school*.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CIE.
- Lee, N. J. (2002). *Western music to rethink in the early 21st century*. Emege, 220-233.
- Liess, A. (1966). *Carl Orff: His life and music*. London: Calder and Boyars.
- Ministry of Education (1997a). *Music curriculum*. No. 1997-15. [Supplementary 12]
- _____ (1997b).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o. 1997-15. [Supplementary 12]
- _____ (1997c). *Commentary on the 7th elementary curriculum (V):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and English*. No. 1997-15.
- _____ (2015a).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_____ (2015b).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 No. 2015-74.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a). *Music curriculum*. No. 2007-79. [Supplementary 12]
- _____ (2007b).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 No. 2007-79.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a).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 No. 2009-41.
- _____ (2009b). *Music curriculum*. No. 2011-361. [Supplementary 12]
- Orff, C. (2004). *Carl Orff: The schulwerk*. Trans Margaret Murray. New York: Schott Music Corporation.

Orff, C., & Keetman, G. (1958). In M. Murray (Ed.), *Music for children I pentatonic*. London: Schott Music.

Seog, M. J., Choi, M. Y., Kim, Y. J., Choi, Y. R., Jang, E. S., & Jeong, J. H.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Dona-A.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Dona-A.

Seog, M. J., Choi, M. Y., Kim, Y. J., Choi, Y. R., Jang, E. S., Ryu, N. H., & Jeong, J. H.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Dona-A.

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Dona-A.

Snell, C. A. (1980). *The philosophical basis of Orff-Schulwerk*. Dكتور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ong, J. J. (2019). Shaping of the ideas of Jaques-Dalcroze, Kodály and Orff on rhythmic education through corporeal move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03-127.

____ (2021). *Body movement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usic based on the approaches of Jaques-Dalcroze, Kodály and Orff*. Dكتور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zönyi, E. (1994). *Kodály music teaching method*. Trans Cho, H. K. Seoul: Dara.

Yang, J. M. (1995). Rhythm learning sequence in hungary music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Reality*, 10, 431-449.

Yang, J. M., Yoon, H. R., Kim, E. J., Park, J. Y., Park, J. H., & Kim, E. Y.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4*. Seoul: Chunjae Textbook.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4 teacher's guide book. Seoul: Chunjae Textbook.

Yang, J. M., Lee, D. H., Kim, D. H., Yoon, H. R., Kim, E. J., Park, J. Y., Park, J. H., & Kim, E. Y. (2019a). *Music textbook for grade 5-6*. Seoul: Chunjae Textbook.

____ (2019b). *Music textbook for grade 5-6 teacher's guide book*. Seoul: Chunjae Textbook.

Yi, Y. M. (2009). A study of hungarian music textbooks reflecting Kodály's choral composi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7, 165-192.